



미 증시, CPI 대기심리 확산 등으로 약보합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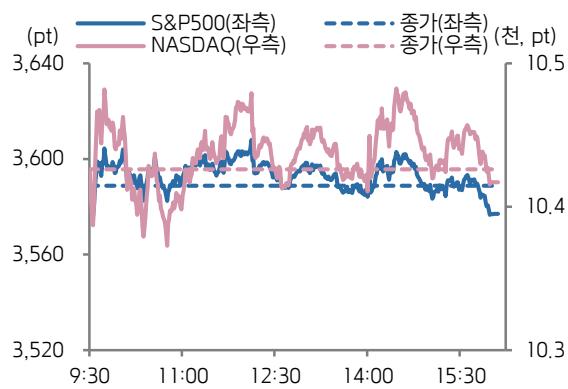
12 일(수) 미국 증시는 예상치를 상회한 9 월 PPI, 영국발 금융 불안 지속 등으로 장 초반부터 변동성 장세를 연출했으나 이후 9 월 CPI 대기심리 속 예상에 부합한 9 월 FOMC 의사록 등을 소화하면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채 약보합세로 마감(다우 -0.1%, S&P500 -0.33%, 나스닥 -0.09%).

미국 9 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8.5%(예상 8.4%, 전월 8.7%), 전월대비로는 0.4%(예상 0.2%, 전월 -0.2%) 증가하며 컨센서스 상회, 3 달만에 상승 반전. 9 월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7.2%(예상 7.3%, 전월 7.2%), 전월대비로는 0.3%(예상 0.3%, 전월 0.3%) 예상치 부합. 공급난 개선되며 물가 상승 압력은 완화됐지만 여행, 식품, 의료비 등 서비스 비용이 다시 증가한 것에 기인하며, 인플레이션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한편 유럽 8 월 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5%(예상 0.7%, 전월 -2.3%) 상승하며 예상치 상회. 그러나 이는 일시적 효과이며 향후 수요둔화,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지표는 경기둔화를 반영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

이날 공개된 9 월 FOMC 의사록에서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예상보다 느리게 나타나고 있으며 금리를 제약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4.5%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스탠스 유지. 한편, 일부 위원들이 실질 GDP 성장률이 추세 이하의 흐름을 보일 가능성 및 경제상황에 대한 역효과를 막기 위한 금리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한 영향으로 미 2 년물, 10 년물 국채금리는 고점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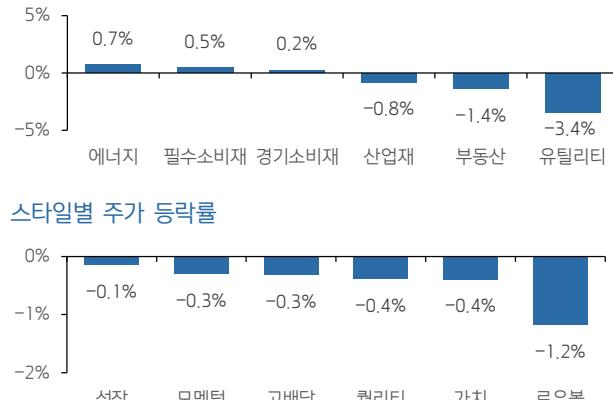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0.7%), 필수소비재(+0.5%), 경기소비재(+0.2%) 업종은 상승, 유틸리티(-3.4%), 부동산(-1.4%), 산업재(-0.8%) 업종은 하락. 이날 펩시코(4.18%)는 양호한 3 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가격인상 영향으로 향후 긍정적인 매출을 전망하며 음식료 업종 실적 기대감 부각. 모더나(8.28%)는 머크가 암 백신에 대해 모더나와 협력할 수 있는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 2 억 5 천만달러를 지불할 것이라는 보도에 급등.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지수	가격	외환시장			
			변화	지수	가격	
S&P500		3,577.03	-0.33%	USD/KRW	1,424.64	-0.76%
NASDAQ		10,417.10	-0.09%	달러 지수	113.25	+0.03%
다우		29,210.85	-0.1%	EUR/USD	.97	+0.01%
VIX		33.57	-0.18%	USD/CNH	7.18	+0.01%
러셀 2000		1,687.76	-0.3%	USD/JPY	146.88	-0.02%
필라. 반도체		2,198.60	-0.9%	채권시장		
다우 운송		12,618.53	+0.63%	국고채 3년	4.102	-24.3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4.092	-21.8bp
Eurostoxx50		3,331.53	-0.26%	미국 국채 2년	4.291	-1.5bp
MSCI 전세계 지수		550.37	-0.31%	미국 국채 10년	3.896	-5.1bp
MSCI DM 지수		2,367.69	-0.36%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865.34	+0.08%	WTI	87.27	-2.33%
MSCI 한국 ETF		49.12	+1.03%	금	1677.5	-0.5%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1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9%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424.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금일 밤 발표 예정인 미국 9월 CPI 경계심리의 장중 국내 증시 확대 가능성
2. 국내 반도체주로의 외국인 순매수 지속 여부
3. 신라젠 거래 재개가 전반적인 바이오 섹터에 미치는 수급 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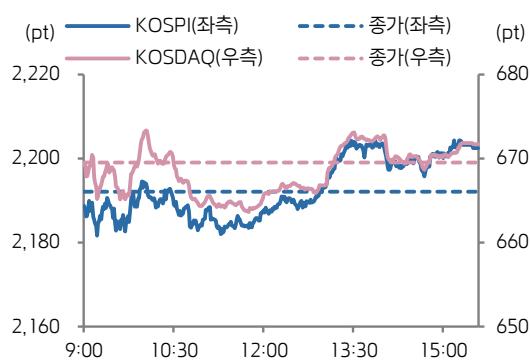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시장은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들이 출현 했었지만, 한국시간으로 금일 밤 발표 예정인 미국의 9월 CPI(소비자물가)를 둘러싼 관망심리가 지배적인 분위기였음. CPI 보다 하루 먼저 발표된 미국의 9월 PPI(생산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YoY) 8.5%로 8월(8.7%)에 비해 상승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컨센(8.4%)을 상회하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 레벨 다운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황. 현시점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음식료(8월 -0.1%→9월 +1.2%), 에너지(-5.6%→+0.7%) 등 한동안 전월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품목들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것. 물론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PPI 가 아닌 CPI 이긴 함. 다만, 러-우 사태 관련 지정학적 불안감이 재차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금번 PPI 결과는 한동안 시장에 형성됐던 에너지발 인플레이션의 빠른 레벨다운 기대감을 일정부분 후퇴시킨 것으로 보임.

9월 FOMC 의사록은 다분히 매파적이긴 했지만, 이미 지난 21일 9월 FOMC 종료 이후 잇따른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스탠스를 재확인하는 성격이 짙었던 것으로 판단. 금번 의사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상보다 잘 안떨어지고 있는 고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며 긴축을 너무 적게 할 경우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연준 내 다수 의견인 것으로 보임. 동시에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일부 위원들이 불확실해진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고려해 금리인상 속도조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는 점에도 주목해볼 필요. 이는 최근 국채 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축과 원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BOE 나, 10월 50bp 인상을 결정하면서도 2명의 25bp 소수의견이 등장한 한은처럼 연준 역시 중앙은행 입장으로서 금융시장 안정을 간과하기가 어려움을 시사. 더 나아가 연준의 기본적인 성향은 데이터 의존적인 만큼, 시장참여자들 입장에서도 9월 CPI 및 이후의 지표 결과에 따라 높게 고정된 긴축 강도 및 비관론으로 점철된 증시 분위기가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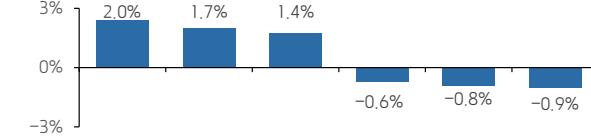
전일 국내 증시는 BOE 총재의 시장 불안 촉발 사태 등으로 인한 대외 금융시장 불안에도,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규제 유예, 금통위 소수의견 등장 소식 등에 힘입어서 반등에 성공(코스피 +0.5%, 코스닥 +0.3%). 여전히 한국 증시 조정 과도 인식이 유효한 만큼 금일에도 주가 복원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장 마감 후 밤 시간 발표 예정인 미국 CPI 결과를 둘러싼 경계심리로 인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주가 흐름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 또한 업종 관점에서는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되는 신라젠에 일시적인 수급 쓸림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전반적인 바이오 업종의 주가 및 수급 변화 여부도 금일 증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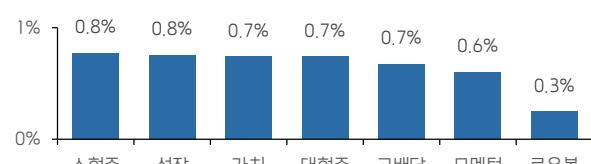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